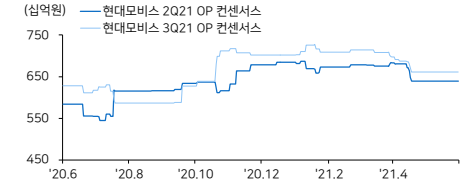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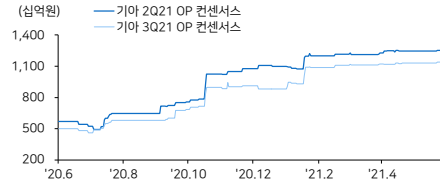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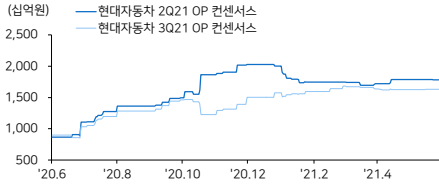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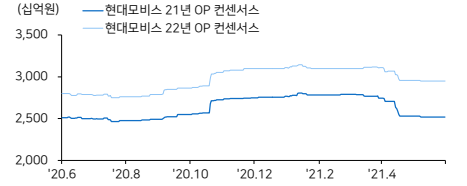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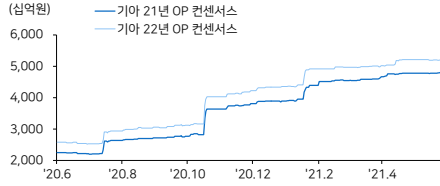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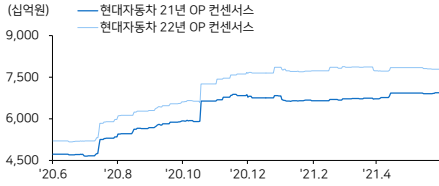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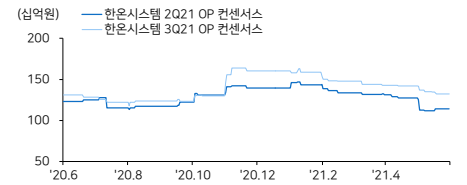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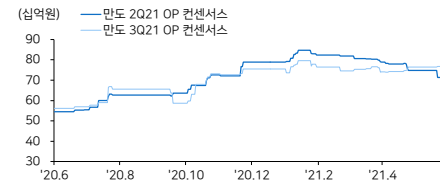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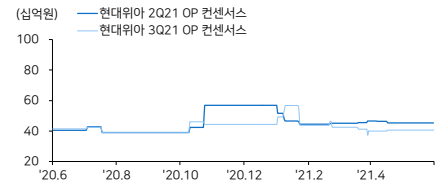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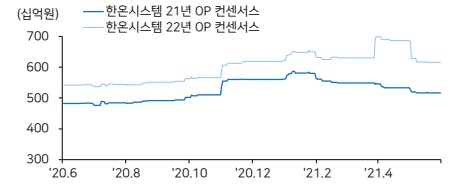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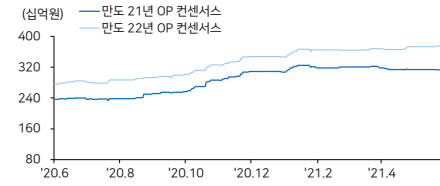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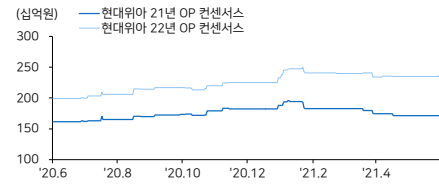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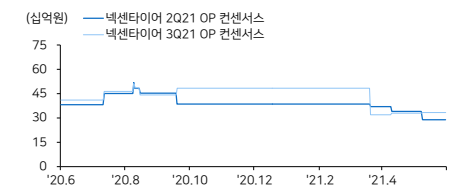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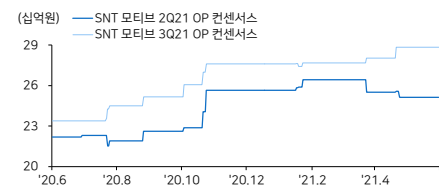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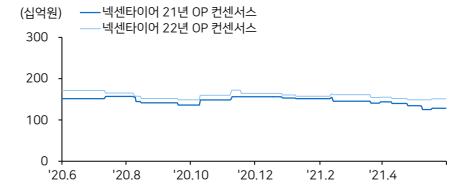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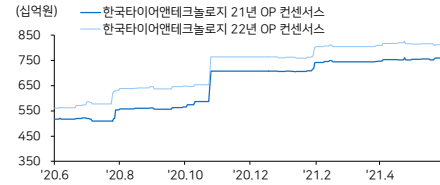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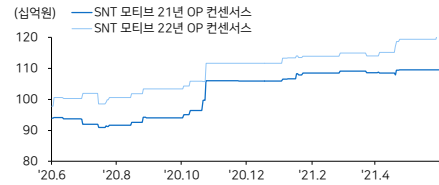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작년에 인한 중간배당 올리는 한다 (조선일보)

현대차가 지난해 중단했던 중간 배당을 올해 다시 시행할. 현대차는 15일 "이달 30일 기준으로 올해 중간 배당을 받을 권리 주주를 확정한다"고 공식했으며, 배당금액, 지급 일정 등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
<https://bit.ly/2RXPXJZ>

기아, 인도 디지털 판매 강화... '디지털 커넥트' 출시 (THE GURU)

기아가 인도에서 디지털 판매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함. COVID19 상황을 감안, 디지털 판매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고객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대리점과 연결하고 딜러와 화상 회의를 연결해 주며, 다자간 소통도 가능한 점이 특징.
<https://bit.ly/3wtgKUr>

한국타이어, 미 가격 또 올린다...상용차 타이어 최고 7%↑ (THE GURU)

한국타이어는 오는 8월부터 미국에서 판매하는 트럭 등 상용차 전용 브랜드 '라우펜' 타이어 제품 가격을 최대 7% 인상하기로 결정함. 원자재·해상 물류비 상승과 함께 미국 반덤핑 과세에 따른 수익성 확보 차원으로 해석됨.
<https://bit.ly/35mEOYI>

GM, 추가 배터리공장 계획 이번 주 발표. 합작 파트너는? (Auto Daily)

미국 제너럴 모터스(GM)의 마크 루스 사장이 이번 주 후반에 더 많은 미국 배터리 생산공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함. 추가되는 배터리 공장지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또 정확히 무엇을 제조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음.
<https://bit.ly/2TxxuWb>

제네시스 'GV80' 미 집단소송 당해... '엔진덜링' 탓 (THE GURU)

현대자동차 고급브랜드 제네시스 대형 SUV GV80의 엔진덜링으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음. 미국 내 견고한 판매 성장세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https://bit.ly/3gnOHeT>

현대위아, 현대차 도심항공교통 핵심부품 개발 나선다 (THEEELEC)

현대위아는 올해 신규 연구개발(R&D) 담당 조직으로 특수사업실을 신설하고 UAM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전해짐. "UAM 운용 환경에 맞는 착륙장치, 제이거 등 주요 핵심구성품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함.
<https://bit.ly/3wz0e1L>

車집 공급 부족 사태 향후 6주 고비 (THE GURU)

폭스바겐이 오는 7월을 반도체 공급난의 분수령으로 내다봄. 최대 고비를 겪은 뒤 3분기부터는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현재 반도체 이슈는 COVID19 발 IT 수요 급증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종식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
<https://bit.ly/3xqpLO>

테슬라 후보인 '인기'... 데이터 전 자동차회사들, 보험업 넘본다 (한국경제)

주행 데이터 확보에 이점을 지닌 자동차 제조사들이 기존 보험사들 경쟁력을 뛰어넘을 것이라 판단에 완성차 제조사들이 보험업에 진출 중. 테슬라는 이미 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이며 지난해 중국, 유럽 등으로 영역을 넓힘.
<https://bit.ly/3xqDkC>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